지상백고좌

서울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사회복지는 ‘화두’요, ‘염불’이요, ‘수행’입니다”



성운 스님은… 대한민국 사회복지계의 어른이자, 불교사회복지의 선구자인 성운 스님은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강원 졸업 후 수행 중 1970년대 후반 삼천사 주지로 부임해 대가람으로 중창했다. 사회복지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불교학회 회장으로 불교학 발전에 기여했고 성운학술상을 제정해 후학양성에도 진력하고 있다.

몇 년 전 처음 성운 스님을 뵈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또렷하다. 팔순을 앞두고 있었지만 스님의 발걸음이나 손짓은 물론이고 얼굴 표정 역시 20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가장 선명했던 것은 스님의 ‘마음’이었다. ‘패기’였다. 누구보다 젊고 미래지향적인 당신의 생각을 설명하던 스님을 보며 ‘생각과 마음이 젊은 진짜 청년’을 만난 느낌이었다.

최근 성운 스님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스님이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2일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는 것이었다.

스님이 사회복지에 헌신하며 수많은 성과를 일군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 스님을 옆에서 ‘아주 살짝’ 지켜봐 온 입장에서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곧바로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서울 삼천사로 향했다. 서울에 있지만 깊은 산속 어딘가에 있는 절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삼천사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계곡의 물소리는 시원했고 큰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산바람도 정겨웠다.

삼천사는 북한산 의상능선의 한가운데 등줄기를 이루는 용출봉(龍出峰), 용혈봉(龍穴峰), 증취봉(甑炊峰)에 둘러싸여 있다. 30여 개의 전각에 내외국인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는 대찰(大刹)이 바로 삼천사다.

‘삼각산 삼천사(三角山 三千寺)’가 적힌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보물 마애여래입상에 절을 올렸다. 이어 다른 절의 산신각과 같은 ‘산령각’에 올랐다. 산령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 보니 마치 신선이 된 느낌이다. 산의 기운을 온전히 품에 안고 성운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전설

스님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여전했다.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삼배를 올렸다. 전에도 그랬지만 스님 방에는 각종 상장들이 가득했다. 훈장부터 표창까지 종류도 다양했고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스님은 이미 교정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바 있다. 성운 스님이 설명한 노인복지 관련한 업적들부터 정리해 본다.

1994년 11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을 설립한 성운 스님은 △인덕노인복지회관 설립 운영 △전국 최초 치매노인 단기보호소 설치 운영 △전문요양원 호암마을 설립 운영 △어르신 맞춤형 50여 개 프로그램 개발 노인종합복지관 제공 △단순 쉼터개념 소규모 경로당 통합 신개념 경로당인 노인복지센터 개설 운영 등 시대를 앞서는 노인복지모델을 제시 운영해왔다.

특히 2009년 300병상 규모의 최첨단 요양원과 재가방문, 데이케어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합노인복지타운을 완공해 원스톱(ONE-STOP) 토털케어시스템을 구축했다. 2010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지금까지 최우수 요양등급 시설로 운영중이다.

지난 10월2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평생 동안 사회복지 헌신 공로 인정
1984년 앙골라 이재민 성금 모으며
복지 원력 세워…1994년 법인 설립

법인 내 20여 개 복지시설 운영 중
최초 치매노인 보호소 설치 등 성과
예산만 500억 원, 직원 1천명 달해
‘메머드급’ 사회복지법인으로 성장

성운 스님은 나아가 2000년 무의탁 어르신 100여 명에게 낡은 집 개보수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무의탁 독거 어르신 300여 명 무료 틀니 보급 △무의탁 어르신 칠순·송년 잔치 개최 △어르신 검정고시 학교개설 운영 △230여 명 어르신 대상 무료 장례서비스센터 제공 등의 사업도 펼쳐왔다.

“이번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게 된 것은 저에게 무한한 영광이며, 80년이 넘는 인생과 70년이 넘는 수행자의 길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출가 수행자가 세속의 훈장이나 칭찬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만의 공로가 아닌 동고동락을 함께한 은평구민과 서울시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천사와 인덕원 등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제가 은평구 진관외동 삼천사에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은 1978년 삼천사에 왔다. 당시 삼천사 주변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보고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1975년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기도를 하던 중 문수동자를 친견했습니다. 문수동자가 삼각산으로 가서 포교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꿈에서 마애여래입상을 봤어요. 삼천사에 와 보니 꿈에서 보았던 마애여래입상이 계셔 여기서 짐을 풀었습니다. 당시 진관내·외동은 상이군경과 철거민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절의 보리쌀 등을 나눠주던 중 중생에게 나눔을 베푸는 일이 자비복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운 스님은 “종교와 사회복지는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강조하며 말을 이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빈곤을 구제하는 데 국가가 비운 자리를 종교가 채워야 합니다. 출가 이후 60년이 넘도록 화두를 참구하고 교학을 연찬하면서, 진리는 대승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으로 봉직하면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성운 스님은 총무원장 녹원 스님을 모시고 1984년 조계종 사회부장 소임을 맡았다.

“녹원 큰스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주변 도반들의 추천으로 사회부장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도반들이 ‘해인강원을 졸업해 내전(內典)에도 밝고 영어에도 능통해 국제적 감각이 있고 또 현대사회 흐름을 잘 알고 있어’ 추천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평가였죠.”

성운 스님의 불교사회복지 원력도 녹원 스님을 모시면서 구체화됐다.

“제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종단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앙골라 이재민 돕기 모금을 하면서입니다.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6000만원을 모금해 전달했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그때 개신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사회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한없이 초라했던 불교 현실에, 정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이웃종교 상황에, 두 번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 뒤 복지법인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니 녹원 큰스님만 저의 뜻을 지지해주셨고 다른 소임자들은 눈만 깜빡이고 있던 상황이 기억나네요.”

13면에 계속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
나의 원불도 하나뿐!

거제도 명당에 불교의 세계를 담은 세계건축 명장의 설계와 나만의 도자기 부처님으로 신개념 불교센터 사원을 건립합니다.

창건불사에 인연공덕 지으십시요!

원 불 108만원

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 의

010-5514-1002 (오오!일사천리)

